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September 2011
Vol. III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
(막 4:14)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과 현지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i! 한국의 일본 치하 36년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필리핀도 약 50년간 미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필리핀에는 '따갈로그'라는 표준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사회 전반을 이끌어 가는 주요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정체성 확립을 이유로 정책적으로 필리핀의 표준어를 영어가 아닌 따갈로그만을 사용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통치의 역사가 과거 속으로 점점 더



해변교회 유년부 어린이들

멀어짐에 따라, 세계화의 추세와는 달리 필리핀의 일상 언어에서는 영어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는 배우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언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들의 언어 속에는 자연스럽게 혼용되는 이들만의 영어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영어와 사뭇 다른 것들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필리핀의 언어에는 3인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즉, 그 (He)와 그녀 (She)의 차이가 없습니다. 필리핀어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중에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편한대로(?) 'He'와 'She'를 사용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영어를 제법 한다는 사람들도 'He'와 'She'를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자도 'She'가 될 수 있고, 그 여자도 'He'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것 같지만, 가벼운 대화 중에도 이 차이로 인해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 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제 아내를 'He'로 지칭할때는 더욱 더 그러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일상 중에서 'Sir'와 'Ma'am'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영국이 아닌 미국에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길에서도, 가게에서도, 지프니에서도, 현지인과 대화를 할때면 하루에도 수없이 저를 향하여 'Sir', 'Sir'...라고 말하고 대답하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여자에게는 'Ma'am'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이 'Sir'와 'Ma'am'은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과는 별로 상관없이 사용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즉, 자신보다도 나이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호칭할 때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일 뿐입니다. 'Sir', 'Sir'..라고 불러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제게는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Sir', 'Sir'..라는 소리가 이제는 마치 시계의 초바늘이 ' 짹 짹' 거리는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10)**



라뿌라뿌 초등학교

그리고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아주 일반화 되어 있는 단어 중에 'Solicitation'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자주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단어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후원금을 모금할 때에 일반적으로 'Fund raising'이라든지 'Donation'등과 같은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와는 달리 의미가 좀더 강렬한 'Solicitation'이라는 단어를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교도소에서 대부분 이 'Solicitation'을 통하여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이곳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워낙 물질이 부족하다보니, 아주 작은 예외적인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이 'Solicitation'을 남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곳에서 선교사라는 위치에 있다보니, 주위로부터 이 'Solicitation'에 아주 적합한 대상이 되어서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라뿌라뿌' 초등학교는 이 빈번한 'Solicitation'으로 저희를 당혹케하는 학교입니다. 해변 마을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이 라뿌라뿌 초등학교는 학교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00명이나 되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2부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교회의 New Spirit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아이들 모두가 라뿌라뿌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제반 비용과 관련하여 교장 선생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저희들의 사역을 단순히 자선 사업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까닭에 저희에게 아주 빈번하게 다양한 'Solicitation'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수를 위한 시멘트 구입비, 선생님들의 연례 모임 비용 보조, 운동회 지원, 다른 가난한 학생의 학비 명목등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다양한 'Solicitation'으로 인하여 해변 교회의 목사님도 저희와 학교 중간에서 아주 난처해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새학기를 맞아 New Spirit 프로그램에 속한 아이들의 비용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라뿌라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비 지원에 감사해 하며 해변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더욱 더 지원을 늘려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혀 생각치 못한 또다른 'Solicitation'을 요청합니다. 라뿌라뿌 초등학교가 지역내에서 가장 청소를 깨끗하게 잘하는 학교로 선정이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 하려면 청소 도구가 많이 필요하니 청소 도구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처한 지경입니다. 이에 대하여 New Spirit 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일이라면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해변 교회를 통해서 라뿌라뿌 학교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 여러 이유로 미루어 왔던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따라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좋다는 허락을 하십니다. 원할한(?) 'Solicitation'을 위한 급한 결정입니다. 단, 한 자리에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교실을 돌아 가면서 한 교실에서 30분씩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려면 학교 상위의 교육 담당 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각 교실의 수업 진행은 교장 본인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어서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뿌라뿌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수만 48개 이어서, 교실당 30분을 감안하더라도 한번의 복음 전달을 위하여 모두 24시간이나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만을 위한 전담 사역자라도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했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라뿌라뿌 지역에 있는 해변 교회를 포함한 4개 교회의 교역자들과 상의를 해서 한, 두명이 아닌 다수의 사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동시에 라뿌라뿌 초등학교의 복음화를 위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역을 통해서 라뿌라뿌 초등학교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제부터 저희를 향해 쏟아질 다양한 'Solicitation'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Hi! 해변교회를 생각할때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 마저도 적막했던 교회가, 이제는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리가 모자라서 보조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교인들이 정착을 하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해변 마을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필리핀 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남편은 2년이 넘도록 한번도 얼굴



예배에 참석한 부인과 아들

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 남편은 마닐라에서 돈을 벌어서 송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부인과 아이들은 생활이 많이 어려워져서 해변 마을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해변 마을에 들어 서려면 좁은 골목을 지나쳐야 하는데, 이 부인의 집이 골목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늘 오며, 가며 반갑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이 부인과 자녀들을 대할때마다 왠지모르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가정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종종 전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인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부인은 물론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닐라에 있는 한국인 남편이 갑상선 암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이 부인의 가정이 더욱 더 곤고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적은 생활비 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걱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하소연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가정을 교회로 인도 하셨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모두들 그 가정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줄때에 많은 눈물을 쏟을 정도로 큰 위로를 얻고 이제는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퇴원을 하여 한국에서 방문한 가족들에 의하여 간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하여 부인 뿐만 아니라 남편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2차 New Spirit 프로그램이 시작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나이에 맞게 학교에 다니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이 관심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부

터는 New Spirit 프로그램에 속한 아이들중에서 끼니 마저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을 선별하여 매월 일정량의 '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의 쌀을 받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별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정별로 주일이 아닌 날을 택하여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14 가정을 선정하여 시작하였는데, 아무쪼록 이 일을 통하여 더 많은 가정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해변 교회가 감사함으로 일어 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 입어서 이루어 지는 줄을 믿고 동참해 주시는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써 감당하시는 사랑의 수고에 대하여 만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고후 8:24)

기도 요청

- 마띠 고등학교의 건축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 차량 구입을 위하여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8,19)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